



서체 기증식

릭스코 · 헤움디자인, 인협에 서체 무상 기증 자체 개발 서체 각 20종씩 총40종 제공

대한인쇄문화협회(회장 김남수)는 지난 1월 12일 인쇄문화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체 기증식을 가졌다. 이날 기증식은 (주)릭스코(대표이사 김재욱)와 (주)헤움디자인(대표이사 김진덕)이 자체 개발한 서체를 각각 20종, 총 40종을 대한인쇄문화협회에 무상기증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행사였다. 2월 1일부터 인협의 회원사들은 폭넓은 범위에 걸쳐 활용도가 높게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경영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글 | 김상호 부장 kshulk@print.or.kr

이날 기증식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은 “고가의 서체를 구입하기 위해 인쇄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체의 무상기증은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서체를 40종이나 기증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이벤트를 기획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김 회장은 “앞으로 회원사들이 서체를 활용하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OTF(Open Type Font)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폭 넓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날 기증한 폰트는 각 사별로 OTF방식으로 20종씩 총 40종이며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130만원에 달한다.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앞으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CD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.

무상으로 공급되는 서체는 출판물 제작용, 홈페이지 제작용, PDF 제작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컴퓨터의 대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지속적으로 서체 공급에 노력

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인쇄공용서체개발에 힘써 왔다.

2009년 '바른바탕체(명조체)' 1종 3서체 10,008자를 개발해 보급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바른돋움체(고딕체)를 개발, KSX-1001기반의 한글 2350자, 영문 94자, KS심볼 986자를 개발했다.

가는체, 중간체, 굵은체의 3단계로 나눠 인쇄업계를 비롯한 일반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인협은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에도 보다 다양한 인쇄공용서체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↻



릭스코(대표이사 김재욱)은 10여년 동안 국내 유수의 언론매체와 대기업의 전용서체를 개발해온 타입디자인 전문회사이며,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등 최고 수준의 서체개발능력을 인정 받아 왔다.

헤움디자인(대표이사 김진덕)은 '아름다운 한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한다'는 의미의 사명처럼 고객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용하기 편리한 폰트를 만드는데 전념해온 서체 개발 전문기업이다.



(주)릭스코 (총20종)

- Rix고딕 4종(EB, B, M, L), ■ Rix명조 4종(EB, B, M, L)
- Rix밝은고딕 4종(EB, B, M, L), ■ Rix정고딕 3종(B, M, L)
- Rix헤드 4종(EB, B, M, L), ■ Rix정정당당 1종

(주)헤움디자인 (총20종)

- 헤움네모고딕 7종, ■ 헤움앵두 2종, ■ 헤움노트르담 2종
- 헤움개미 2종, ■ 헤움클라운피쉬 2종, ■ 헤움크라운피쉬 2종
- 헤움산양 2종, ■ 헤움젠가 1종